

#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정비 Q&A

## Q1. 금번 대책 마련 배경은?

- 정부조달 72% 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, 창업·소상공인에게 정부조달은 생명줄과도 같음
    - \* 정부조달은 '15년 기준 119조원 규모로 이중 85조원(72%)을 중소기업이 차지
    - 그러나, 공급기관의 무리한 입찰제한, 불공정 행태 등이 乙의 입장인 창업·소상공인에게 숨은 규제·진입장벽으로 작용, 기업애로 가중
    - \* 창업기업은 '조달 진입장벽 규제'를 가장 큰 부담으로 토로('16.5월, 옴부즈만)
    -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창업·소상공인들에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조치 필요
- 따라서, 이번에 시급히 공공조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음

## Q2. 금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의미는?

- “진입장벽”(66건), “부당기준”(53건), “제도 불일치”(20건) 등 3대 분야 총 139건의 조달규제 개선과제가 확정되었음
    - \* (예)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실적제한 폐지, 최저가 입찰제도로 인한 출혈 경쟁 방지를 위해 최저가 입찰제도폐지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
  - 국가재정법 도입기준 약 65년, 국가계약법 제정기준 약 21년 만에 최초로 국가조달체계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
    - \* 법령분석(국가-지방계약 간 차이), 공기관 발주사업 전수조사('15년 5만6천건), 30여만 중소기업 조달건의 130건 분석을 통해 혁신방안 마련
- 창업·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문턱을 낮춰 성장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공정한 조달체계 구축으로 민생활력 제고에 기여

### Q3. 이번 조달규제 혁신의 경제적 효과 산출 근거는?

-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, 조달기업 당 1,062만원 규모의 조달기회 및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등 연간 총 3.1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
  - \* 진입비용 3,007억원, 부담경감 5,224억원, 매출증대 8,871억원, 기회확대 1조4천억원
- 또한, 약 1만7천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6천여개의 고용의 질 개선이 기대됨
- 이는, 국내 유일의 조달전문 연구기관인 “한국조달연구원”이 조달청 통계시스템과 한국은행의 금리 등 각종 통계를 기반으로 산정함

### Q4. 창업·소기업 조달애로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?

- 이번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공공 조달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,
  - 과도한 실적요구, 최저가 낙찰제도 등과 같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제도적 문제와 더불어,
  - 국가-지방-공공분야로 각각 분리된 복잡한 조달규정, 그리고 이로 인한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이 공공조달 기업에 규제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
- 따라서, 이러한 규제요인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총 139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, 지속적인 제도개선 이행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이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